

3강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다.(l.i.1)

1. 위대하신 하나님

주님, 당신께서는 위대하시고 크게 찬양받으실 분입니다.
당신의 권능은 크고 당신의 지혜에는 한량이 없습니다.

- 초월자를 향한 신앙의 언어.
- 나는 언제 시작되었나? '나'라는 정체성의 시작?

2.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?

사람 곧 당신 창조계의 작은 조각 하나가 당신을 찬미하고 싶어합니다.
사람은 자기 죽을 운명을 메고 다니며 자기 죄의 증거와 당신께서 오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는 그 증거를 짊어지고 다닙니다.
그래도 사람 곧 당신 창조계의 작은 조각 하나가 당신을 찬미하고 싶어 합니다.
당신을 찬미함으로써 즐기라고 일깨우시는 이는 당신이시니, 당신을 향해서 저희를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안달을 합니다.

- 인간(homo)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이다.
- 내 주 하나님은 창조자 (creare) 인간의 창조의 한 부분(aliqua portio creaturae tuae)
- 교만(superbia)은 죄의 표시

3. 어떻게 내 주를 알 수 있을까요?

주님, 당신을 부름이 먼저인지 당신을 찬미함이 먼저인지,
또 당신을 아는 일이 먼저인지 당신을 부르는 일이 먼저인지
제가 알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. 그렇지만 당신을 모르면서 당신을 누가 부르겠습니까?
모르면서 부르는 사람은 이것인 줄 알고 딴 것을 부르기 십상입니다.
그러니 당신께서 불리시는 것은 혹시 알려지시기 위함이 아닙니까?
그런데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?
또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?
그리고 주님을 찾고 있는 이라면 주님을 찬미할 것입니다.

- 지식의 언어(알다, scire) vs 이해하다(깨닫다, intellegere)

탐구할 대상이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이면 어떻게 연구할 수 있나?
무엇을 발견했다 해도 내가 전혀 알지 못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?
또 내가 이미 그것을 안다면 굳이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?
따라서 대상에 대한 탐구는 애초에 있을 수 없다. (어거스틴 삼위일체론 중에서 요약)

■ 시편 13:1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'신이 없다' 하도다
신을 부정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부패. 죄에 사로잡혀있다.

- 신앙의 언어: 부르다(invocare), 찬미하다(laudare)
- “주여”: 신앙의 언어, 찬양의 언어

4. 믿음으로 내 주를 보게 하여 주소서

주님을 찾고 있는 이라면 주님을 찬미할 것입니다.

주님, 제가 당신을 불러들이면서 당신을 찾아보겠고 당신을 믿으면서 당신을 불러들이겠습니다.

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계시기 때문입니다.

주님, 제 믿음이 당신을 부릅니다. 그 믿음은 당신께서 제게 주셨고 당신 아들을 통해 또 설교자를 통해 저에게 불어 넣어주신 생명입니다.

- 말씀은 주를 찾는 자들에게 계시해주신다.

마 7: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

요 6: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

요 6:65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

-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.

요 16: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

- 성령님이 오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포했다.

행 2: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

5. 오늘의 고백록 한 구절

주여 당신을 부르며, 당신을 찾고 싶습니다.

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계시기 때문입니다.

주여, 나의 믿음이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. 이 믿음은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.
(고백록, l.i.1, 다른번역)

- 선교의 하나님: 이 일은 지금도 주께서 praedicator tuus(당신의 선생)
-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영혼의 생기가 불어 넣어지고 있음을 찬양.

참고한 번역본

선한용 옮김, 『성 어거스틴의 고백록』 (대한기독교서회)

성염 옮김, 『고백록』 (경세원)